

순수한 영원을 찾는 문학적 순례

침묵과 신비에 둘러싸인 작가 르 클레지오

1963년 프랑스 문단에 「調書」라는 처녀작을 가지고 르 클레지오가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했을 때, 그의 탁월한 재능은 곧 프랑스문학의 '젊은 희망'으로 찬탄되었다. 그로부터 4반세기 가 지난 지금, 르 클레지오는 이제 프랑스문학의 '살아 있는 神話'로 추앙받으며 군림하고 있다. 대리석을 깎아낸 듯한 수려한 용모의 이 작가가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현대문학의 한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그에겐 숭한 권위 있는 문학상이 주어졌다.

프랑스 문단의 '젊은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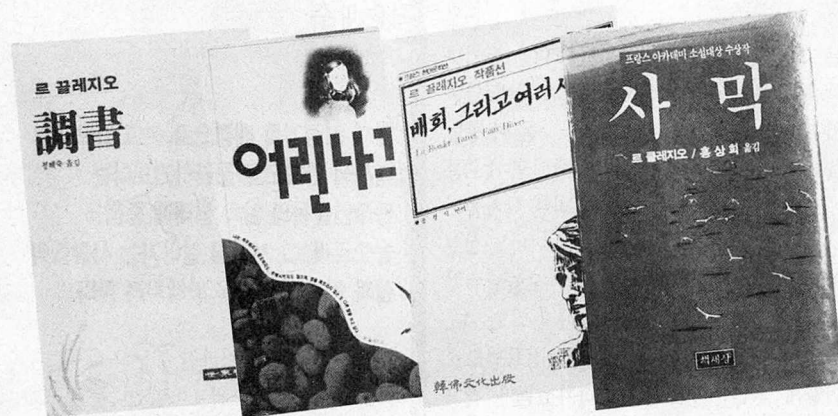
독특하면서도 새로운 작품의 성격 때문인지 르 클레지오 작품의 우리말 소개 역시 비교적 빨랐던 편. 68년 신구문화사에서 펴낸 '현대세계문학전집'에 이미 그의 초기 대표작 중의 하나인 「洪水」(李彙榮 옮김)가 끼어 있다. 이때부터 그는 새로운 방식의 글쓰기를 지향하는 젊은 문학도들에게 지속적인 영감을 주게 됐고, 누보로망 이후의 프랑스문학의 현황을 소개하는 글에서도 그의 이름은 빠짐없이 언급되곤 했다. 그러나 대중적인 지명도를 얻지 못한 탓인지, 80년에 「몽도 파리의 어린 나그네」(진형준 옮김, 청하)가 나왔지만 상업적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르 클레지오 작품의 본격적인 번역·출판은 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야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87년 「사막」(홍상희 옮김, 책세상)이 번역된데 이어 「배회 그리고 여러 사건들」(용경식 옮김, 韓佛문화출판)이 연달아 출판되었고, 최근엔 「사랑하는 대지」(최수철 옮김, 고려원), 「調書」(정혜숙 옮김, 세계사)가 소개되고 「몽도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을 편역한 「어린 나그네」(이재형 옮김, 藝河)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르 클레지오의 국내소개가 이처럼 활발해지는 것은, 우리 불문학계에 새로운 세대가 등장함과 아울러 독자들도 사르트르나 카뮈 이후의 프랑스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르 클레지오의 소설이 프랑스에 던진 충격과 같은 것이 지금 우리 작단에 요구되고 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신화적인 세계로의 여행

그렇다면 독자들을 단숨에 빨아들이는 그의 작품의 비할 바 없는 매혹은 대체 어디서 연유한 것일까. 지금 막 눈을 떠서 이 세상을 처음



카뮈의 「이방인」 이후 가장 찬란하게 등장하여 세계문단의 주시를 받고 있는 작가 르 클레지오. 그의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물질만능의 현대도시를 버리고 원시적 순수를 찾아 헤매는 방랑자들이다.

본 사람의 경이 같은 것, 또는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낭만이 그의 작품에 스며 있어서일까. 인류와 문명의 미래에 대한 묵시록적 비전, 아니면 결코 끝나지 않을 듯 이어지는 현란하고 시적인 문체 때문일까. 그의 모든 작품은 대도시에서 사는 현대인으로 하여금 이제 하던 일을 집어치우고 읽던 책을 던져버리고 어서 떠나라, 일장 저편으로 문명 저편으로 떠나라고 외치는 듯하다.

60년대에 씌어진 「調書」 「洪水」와 같은 초기 작품들은 '웬-카메라'라고 불린 개성적인 문체를 통해 인간의 밀림이 돼버린 현대의 대도시를 사진 찍듯 들춰보여준다. 그의 언어는 때로는 비극적으로 고양되기도 하고 때로는 한없이 미세한 부분에 탐닉하기도 하면서, 인간성을 서서히 마멸시켜가는 현대문명을 극사실주의적으로 해부한다. 현대인들은 이 세계의 표면을 '편력'할 뿐이지 '생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神의 죽음에 이어 이제 인간(=서구문명)도 죽어가고 있음을 이 작가는 놀랄만한 끈기와 만화경적인 상상력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60년대 후반 그가 외국으로 자주 여행을 하고 중남미 인디인들의 생활과 접촉하면서부터 그의 작품은 삭막한 기계-도시문명 저편에 있는 어떤 미지의 영역을 향해 차츰

접근해가기 시작한다. 거의 동화의 경지에 육박하는 「몽도 그리고...」나 현대와 과거, 문명과 원시가 대위법적으로 교차하고 있는 「사막」을 읽어보면 우리는 지금 이곳과 전혀 다른 세계로부터 들려오는 신비한 속삭임, 문명에 오염되기 이전의 창세기적 분위기와

만나게 된다. 한편의 산문시와도 같은 문장으로 르 클레지오는 사라진 세계, 망각된 역사, 잃어버린 순수를 되찾아준다. 레비스트로스의 신화연구에 어는 정도 빚지고 있는, 중기 이후의 그의 소설은 문명/원시의 도식적 우열을 뒤집고 인간의 진정한 삶은 물질의 장벽을 넘어서야만 가능함을 말해주고 있다.

미셸 투르니에와 함께 누보로망 이후의 프랑스 문학을 책임지고 있는 르 클레지오의 작품은 이처럼 현대문명의 종말과 제3세계적 세계관의 가능성을 시사해준다는 점에서도 우리의 주목을 받을 만하다고 하겠다. 참고로, 「사랑하는 대지」라는 작품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구절을 독자에게 던지면서 끝난다.

“이제 당신이 게임을 할 차례이다.”

화제의 책

로댕의 연인 '까미유 끌로델' 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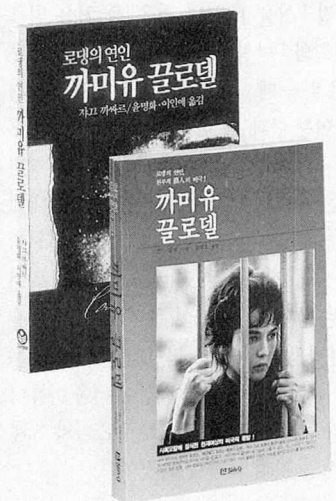
고려원·정음사에서 번역서 동시 출간

로댕의 제자이자 연인이었고, 그 자신이 천재적인 조각가였던 까미유 끌로델(1864~1943)의 전기가 고려원과 정음사 두 출판사에서 거의 동시에 번역 출간, 그녀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 갑자기 고조되고 있다.

고려원에서 펴낸 「로댕의 연인 까미유 끌로델」(자끄 까짜르 지음, 운명화·이인애 옮김)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전기라면, 정음사의 「까미유 끌로델」(안느 텔베 지음, 강명호 옮김)은 그녀의 생애를 한편의 드라마처럼 소설화한 작품. 藝河출판사 역시 정음사와 동일한 텍스트의 작품을 곧 번역 출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국내에 소개된 두 전기는, 까미유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로댕과의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19세기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예술혼을 펼치려 했으나 결국에는 광기로 치달았던 그녀의 비극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흥미롭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고려원의 책은 내용이 단편적이어서 까미유의 심리적 갈등에 대한 치밀한 묘사를 결여하고 있는데다가



原典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정음사의 그것은 그녀의 작품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및 평가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어, 두 출판사가 책을 내놓는데만 성급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 따라서 까미유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라면 두 권을 함께 읽는 것도 좋을 성싶다.

고려원 / A5 / 244면 / 3500원
정음사 / A5신 / 410면 / 3900원